

국립공원의 아생화

연분홍 꽃잎아래 씨방이 길어 '바늘꽃'



<136> 바늘꽃

바늘꽃은 바늘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우리나라 각처의 산이나 들의 햇볕이 잘 들어오는 풀이나 풀숲에서 자란다.

꽃이 지면 씨방이 바늘처럼 길쭉하게 자라는데, 그 모습이 바늘을 닮아 '바늘꽃'이라고 불린다. 꽃이 필때쯤 줄기와 꽃받침이 붉은색으로 변해 '적화(赤花)'라고도 한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다큐 뉴욕 진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제작 지원한 독립 다큐멘터리 '베리타스, 허버드 그들만의 진실'(감독 신은정)이 22일 뉴욕국제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된다.

세계의 명문대학 허버드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한 이 다큐멘터리는 광주 출신인 신은정 감독의 첫 장편으로, 허버드대학의 역사와 전 지구적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사진작가 이현근씨 '소통' 사진전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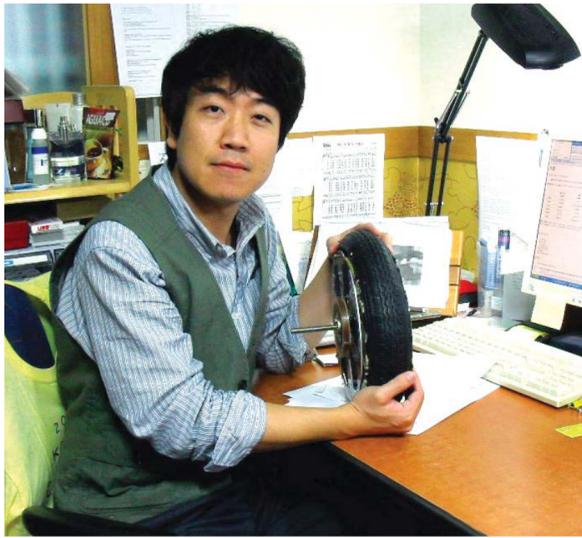
"사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간에 소통하는 것입니다." 전남도교육청 계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이현근(63)씨가 최근 서울 광진구 사진작가회가 주최하는 제13회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에서 영예의 금상(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소통'을 주제로 출품한 이씨의 작품은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아 중앙무대에서 지방 사진작가의 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씨는 지난 1984년부터 2009년 3월까지 25년간 전남교육청 교육홍보실 사진담당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임을 하고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모차 경사로 감속장치 발명 전남대 치전원 홍성빈 씨

“치과의사 만으로는 만족 못해 이웃의 불편도 치료하고 싶어요”



미래의 치과의사가 급경사에서 유모차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신현) 2학년 홍성빈(33)씨는 최근 '경사로 감속 장치'를 개발, 이를 특허 출원했다. 순천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에서 대학원까지 마친 홍씨는 대학시절부터 유난히 기기 조작이나 발명에 관심이 많았다.

유모차 '경사로 감속장치'의 개발도 생활 속에서 이웃들의 불편을 보고 고안해 낸 것이다. 대학시절 경사로 인근의 하숙집에서 생활할 때, 이 곳의 젊은 부모들이 유모

차를 끌고 나왔는데 급경사에 이르러 아래방향을 쓸리는 유모차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봤던 것이 발명의 계기가 됐다.

홍씨가 개발한 장치는 경사로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감속이 되었다가 평지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제동이 풀리는 장치다.

자동 장치라 주부들이 힘을 들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모차가 넘어질 위험도 전혀 없어 상품화될 경우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치와 관련해 이미 3건의 특허를 출원해 그중 2건이 2011년 등록 완료됐다. 현재 국내외 여러 기업에서 제품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량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평가중인 회사도 있다. 홍씨는 이중 일부 회사와 기술 이전 계약도 추진하고 있다.

홍씨는 이번 발명 등으로 인해 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Social Venture Competition' 우수상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주최한 대학(원)생 창업아이템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난달 18일 광주테크노파크 청년창업기업(인)으로 선정돼 제품 개발비 지원도 받게 됐다.

홍씨의 희망은 치과의사로서 봉사하기보다는 연구로서 치과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 기기를 개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는 애초 취향과 성격이 진료보다는 연구, 특히 개발에 적합했다. 심리학과 대학원 시절 우연히 내장형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의료 기기 개발에 응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

생각나는 것이면 뭐든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풀리는 성격 탓에, 대학 때는 틈틈이 전자 자동차 제작 동아리 회장이었던 친구를 따라 동아리 작업실에 다니면서 선반·밀링 머신·용접 등 금속 가공법까지 배웠다. 지금도 대학 기계 공학 실습실에서 필요한 부품은 직접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다.

홍성빈씨는 "현재는 틈틈이 내장형(embedded)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정확한 진료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과 진료 의료 기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이 희망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장흥 청소년상담센터 '가족노래자랑'



장흥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위명운)는 최근 9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가족노래자랑'을 개최했다.

〈장흥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제공〉

영성의료재단 고희에 노인요양원 개원



고흥 영성의료재단(이사장 류형식)은 지난 2일 고희읍 남계리에서 '고흥종합 노인요양원'(지상 3층·임상정원 80명 규모) 개원식을 가졌다.

〈고흥군 제공〉

동신대, 유학생 80여명과 '문화탐방'



동신대(총장 김필식)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유학생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최근 80여명의 유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동신대 제공〉

돌배 키우던 50대 고3아줌마 만학 꿈 이뤘다

광양 염강자씨 순천대 합격

광양에서 돌배농사를 지으며 주경야독한 50대 여성 농업인이 대학에 수시합격 만학의 꿈을 이뤘다.

백운산자락에서 감자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염강자(54)씨는 이번 순천대학교 식품공학과 수시모집에 지원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염씨는 그동안 낮에는 비탈진 농장을 트랙터로 오가며 백운배, 매실, 대봉 등 3만㎡의 농사를 짓고 밤에는 감기는 눈을 비비며 야간고등학교 고3 학생으로 학업에 매진했다.

염씨가 만학의 꿈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1996년 광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 여성농업인생활대학 농산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반을 다니면서부터이다.

중졸의 학력으로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등 도전하기에 염두가 나지 않았지만 기술보급과 직원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3년만인 1999년 농산식품가공기능사, 2000년 제과·제빵기능사를 취득했고, 연이어 한식, 양식기능사까지 취득했다. 자격취득만으로는 학업에 갈증을 풀기 힘들었던 염씨는 2009년 야간에 진학했고 최근 대학에 합격함으로써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염씨는 "내 꿈은 백운배죽 단일 품목



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농사에서 벗어나 앞으로 식품공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제품도 개발하고 제2의 흥성리 여사(매실식품명인)가 되고 싶다.라며 "내 이름처럼 여성농업인의 감자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엠마우스복지관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엠마우스복지관과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지난 2일 광천동 유·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향상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엠마우스복지관 제공〉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이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향우회: 남광교회. ▲이종조·김영자씨 장남 승정군 최인철(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교육원 부장)·양미영씨 장녀 지혜(광주월계초등학교 교사)양=5일(토) 오후 5시 조선컨벤션웨딩홀 3층 컨벤션홀. ▲서복석(광주지방 국세청 행정주무)·전검숙씨 장남 지섭(치과의사)군 장준택·송광숙씨 셋째 현진양=5일(토) 낮 12시 40분 홀리데이인광주 3층 로즈홀. ▲임석주·심금자씨 차남 성우군 이한철(광주국제청 감사관)·서순주씨 장녀 수하양=5일(토) 오전 11시 전주코아리베라호텔 1층 백제홀. ▲박옥주·임정숙씨 장남 증순군 윤창준(명성수지 대표)·서영애씨 장녀 상희양=6일(일) 오후 1시 30분 조선컨벤션 3층 컨벤션홀. ▲정환호·김현숙씨 장남 의석군

모집: ▲수창초교 야구부 2·3·4학년=전국소년체전 광주 대표선발 010-6634-5300. ▲힐링 타이로마 회원=친구·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공간 상무지구 종은빌딩 4층 062-372-2023. ▲오양보호사 무료교육생=여성가장인 분들 무료교육, 광주·전남 요양보호사교육원(전남여고 건너편) 062-222-2757, 0102. ▲이화숲유치원=친환경급자재 시공(관백나무 교실, 강당, 요리실습실, 사계절 수영장) 5~7세 유아 수시모집, 진월동 리제 3차 아파트 옆 062-367-0851~3.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실

부음: ▲추밀너씨 별세 이진홍(총남대 환경공학과 교수)·현석(서울수치과 원장)·소영(부천 이화약국)씨 모친 상 정남준(전 행정안전부 차관·광주시 행정부시장)씨 빈모상=발인 5일(토)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5호실 02-2227-7577, 010-8582-6464.

故人의冥福을 빕니다 弔: 故 張 錫 君 公(남/79세) 子/子婦: 고병환/정순희, 병희, 병문/심금숙 女/婦: 고연/이경희 •발인: 11월5일 08:00 •장지: 임실호곡원(영락) •연락처: 250-4409. 故 韓 宗 仁 君(남/81세) 子/子婦: 한태현/이문선, 인성/조희자, 현복/임경숙 女/婦: 한정숙/양정필, 혜숙/조연천 •발인: 11월4일 08:00 •장지: 순향 금과 방죽리 선영 •연락처: 250-4407. 故 최이래 님(여/90세) 子/子婦: 조행안/문지은, 복현, 용남/김미경 女/婦: 조순자, 숙자, 영자/최경희, 영숙/최용실 •발인: 11월4일 12:00 •장지: 함평읍 수호리(영락) •연락처: 250-4413. 故 김태조 님(남/84세) 子/子婦: 김길남/조성숙, 영남/백종갑, 재우/육동희, 성용/권양실고/윤원주 女/婦: 김순복/김동선, 재삼/박종출(국민은행지점장) •발인: 11월5일 07:30 •장지: 진도군 군내면 선영 •연락처: 250-4412. 故 박준석 님(남/72세) 子/子婦: 박재서/김은경, 재중/김혜진 女/婦: 박재희/정봉수, 재민/강정호 •호실401호 •발인: 11월04일 •장지: 영락공원 •발인: 11월4일 •연락처: 227-4383. 故 이규래 님(여/86세) 子/子婦: 김영부/서준재, 영남/구덕순 女/婦: 김희미, 현선/김성희 女/婦: 김순덕/정봉근, 윤영/김영희, 정숙/이연중 •호실201호 •발인: 11월05일 •장지: 화순정릉 •연락처: 227-4381. 故 공상용 님(남/61세) 未亡人: 최지현 子: 공준현 女: 공한지/김영솔 •호실102호 •발인: 11월05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24시간대기 (062)250-4455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876-17